6. 본인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

7전8기입니다.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엔 하라는 공부만 죽어라 하고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공부하여 결국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, 살아가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. 모두들 절 보면 '넌 꼭 잘 될거야’ 라고 합니다. 제 장점인 ‘열심히’ 살다 보면 머지않아 제 적성을 찾을 수 있고, 그때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볼 거라고 믿습니다.

7. 본인의 열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. \*

본인이 어떤 것을 열정적으로 해보았는지, 혹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임할 것인지 등을 서술해주시면 됩니다.

열정의 사전적 의미는 ‘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’ 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았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. 전 ‘칭찬이 좋았던 아이’입니다.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듣기에 급급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라는 것만 하고 살았습니다. 열중은 했으나, 애정은 빠진 상태였습니다.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의 유상신 교수님께서 첫 수업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. “대학에 와서 깨진 항아리가 되어라.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깨져라. 그러면서 배워라.” 전 소울에 들어와서 말 그대로 제가 제 진심을 담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나가며 깨지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. 또한, 어떤 활동이던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
8. 페이스북 등 검색기록을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출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술해주세요.

정말 편리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만, 관련 규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현재 **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**에는 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. 따라서 내가 기술자가 되었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.